論 壇

韓國 大學의 몇 가지 問題와 展望*

金 玉 煥
(世宗大 敎育學科)

한국의 대학은 그간 量的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質的인 면에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하겠다. 그것은 대학이 지향하여야 할 본질적인 使命과 理念이 불투명한 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大學의 理念에 입각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 대학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학의 미래상을 전망하여 본다.

Ⅰ. 韓國 大學의 發展 背景

韓國 大學의 發展 背景은 약 4世紀前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高句麗의 太學(372 A.D.)에서 李朝의 成均館에 이르기까지 주로 官吏養成의 理念을 具顯하였던 古代型 大學과 開港(1876년)이래 日帝가 韓國併呑(1910년)을 하기까지의 近代型 大學敎育의 萌芽期를 거쳐 日帝가 彈壓한 1945년까지의 點綴되는 背景을 갖는다.

이후 民族의 解放과 더불어 韓國의 大學은 一大轉換期를 맞아 現代型 大學의 定礎를 마련하였다. 특히 1950년대는 '大學의 봄'이라 불리우리 만큼 단 2년 사이에 66개의 大學이 認可되어 韓國 大學史上 대학의 '樂園時代'를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趨勢는 마침내 오늘에 이르는 韓國的 大學相을 자아내는 所致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3년 現在 大學의 總 入學定員數는 專門大學까지 포함하여 357,543명이 되었는데, 이는 同一 年齡層의 약 42.7%가 대학에 進學하고 있어 M. Trow의 學說에 따르면 élite型을 지나 mass型인 大衆化 段階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universal型에 처해 있는 美國 다음가는 높은 進學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C. Kerr가 말한 바와 같이 選拔機能上으로 볼 때 非選拔的(non-selective) 段階에 進入하고 있어, 실로 大學敎育의 立志之國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韓國의 大學은 量的인 成長은 刮目할 만하지만 質的인 면에서는 아직도 遼遠하다 하겠다. 대학이 志向하여야 할 本質的인 使命과 理念이 不透明하여 아직도 質的인 充足面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래에 理念에서 본 問題點을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分析·考察하여 韓國 大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韓國 大學의 未來像

* 이 글은 特定 大學을 指稱해 쓴 것이 아님을 밝힌다.

을 전망하여 본다.

Ⅱ. 韓國 大學敎育의 現況과 問題點

1. 理念과 敎育目的

大學의 理念이라 함은 대학의 目的이나 機能에 대한 基本哲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大學敎育의 目的과 機能은 그 대학의 設立理念을 背景으로 한 具顯 可能한 具體的인 陳述이다. 그러므로 한 大學의 理念과 敎育目的은 그 대학의 一貫된 대학교육의 內容과 모든 存立樣式을 규정하는 根本要素가 된다. 그리하여 대학교육의 目的과 機能은 大學의 理念에 의하여 所産되는 成果(end product)라 할 수 있으며 또 이들 성과는 理念에 歸一되고 吸收되는 力動的인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 大學의 理念과 敎育目的 如何는 그 대학의 特色과 大學敎育課程을 비롯하여 大學運營에 관한 일체의 存立樣式이 含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別로 設定된 대학의 理念과 目的은 그 대학을 象徵하는 가장 큰 價値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韓國 大學의 理念과 敎育目的을 槪括하여 分析하여 볼 때, 뚜렷하고 特色 있는 大學理念과 敎育目的을 찾아 볼 수 없다. 대부분의 大學(80% 이상)이 敎育法 제108조의 大學敎育의 目的을 그대로 援用하고 있다. 여타의 대학도 이를 根幹으로 약간의 語句를 修正하거나 挿入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래 大學의 理念과 目的은 대학이 起源한 이래 累積된 學問硏究의 所産인 眞理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持續(endurance)的인 垂直的 理念(vertical idea)을 資源으로 하는 한편, 거기에서 생산된 結果를 社會奉仕(social service)에 공헌할 수 있도록 時代變遷과 社會的인 要求에 適應(adaptation)할 指導者를 敎育(education or cultivation)할 것을 根幹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具顯은 大學마다 同一할 수 없다.

같은 時代의 大學이라 할지라도 國家的 要請에 따라 大學의 理念과 目的이 强調하는 점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同一한 國家內의 大學이라 할지라도 大學의 類型과 相異한 地域社會의 特殊性에 따라 당연히 대학의 理念과 目的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類型과 同一 地域內의 大學이라 할지라도 設立者나 運營者들이 가지는 哲學과 大學觀에 따라 대학의 이념과 목적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韓國 大學의 千篇一律的인 理念과 目的은 이에 대한 認識과 硏究없이 模倣主義에 빠지고 있다는 證據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大學人들이 다만 認可設立過程에서 한낱 要式行爲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 이상의 大學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窺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實情에서는 대학이 國家社會를 이끌 特色(idiosyncrasy) 있는 大學으로 發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학 設立者와 經營者를 비롯한 大學人들의 大學理念과 敎育目的에 대한 再認識과 그에 대한 再定立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최근 文敎部에서 지정한 大學別 特性學科의 設定과 그 育成策은 이와 같은 한국 대학의 실정에서 脫皮하여 대학별 特性化를 志向하려는 一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2. 敎育企劃

大學의 敎育企劃은 대학 이념과 교육목적을 具顯하기 위한 戰略的 實踐計劃이다. 대부분의 大學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理念定立과 目的設定이 미흡한 상황에서 뚜렷한 大學發展計劃이 樹立될 리 만무다.

大學發展企劃은 어디까지나 外形的인 施設設備를 連繫的 수단으로 한 大學理念과 敎育目的 具顯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大學의 모든 外形的 施設은 大學理念과 目的達成을 위한 從屬的 次元을 넘어설 수 없다. 왜냐하면 大學의 理念과 目的이 外形을 修飾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大學이 志向할 理念과 敎育目的이 外形的인 施設에도 反映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 韓國 大學의 實情이라 하겠다. 圖書館의 시설과 敎授硏究室, 附設硏究所, 講義室의 構造, 力動的 關係에서 보는 campus의 master plan 등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意味를 發見할 수 없는 模倣的인 形式化에 불과하

다. 例로서 學問硏究(眞理探究) 理念의 구현은 어느 大學을 막론하고 本質的으로 追求하여야 할 이념인데, 이 理念具顯은 주로 圖書館의 施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韓國 大學이 갖추고 있는 平均 藏書數는 學生 1人當 14.1卷으로, 이는 '基準'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뒤떨어진 質惰이다. 더우기 藏書의 質은 '싸구려' 書籍으로 量的인 充足에 급급했다 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閱覽 座席數의 不足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圖書館 全體的인 立體 空間的인 構造와 그 質이 眞理探究를 위한 學問硏究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形式에 치우친, 썰렁한 物量的인 팽창에 치중하고 있는 大學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學科의 編制나 增科增員 계획도 量的 成長에 치우친 羅列主義에 빠지고 있다. 理念과 連繫된 大學發展企劃이 수립되어 있다면 大學마다의 特性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學科의 編制에도 大學理念이 反映되어 있어야 한다. 設立理念이 투철하고 地域社會의 要求充足에 副應한 學科編制의 特性을 찾아 보기 드물다고 하는 것은 結果的으로 뚜렷한 理念 없이 獨創性 없는 大學으로 그저 時流에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大學은 規模의 대소에 따라 다를 뿐, 單一模型의 획일화된 大學이라 하겠다. 無計劃的인 學科增設의 量的 成長이 바로 質的 充足의 手段과 綜合大學 昇格의 捷徑으로 誤導된 韓國 大學은 즐비한 校舍와 建物을 綜合大學에 이르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근시안적이고 內實 없는 저렴한 '싸구려' 建物의 外形的인 施設擴張에만 집착하는 風潮가 되어 버렸다.

大學의 生命은 透徹하고 特色 있는 大學理念의 定立과 이에 一致된 發展企劃의 樹立에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미루어 볼 때 韓國 大學은 大學理念과 無關한 狀況에서 方向 없는 乖離된 企劃에서 그저 惰性的인 收支均衡의 經營主義에 빠지고 있다.

3. 敎授陣의 需給

大學에 있어서 敎授陣의 확보는 제일 우선적 要件이 된다. 敎師·學生·敎材라는 敎育의 三要素는 옛부터 重要視되는 要素였다. 그 중에서 가르치는 位置에 있는 敎授는 第一義的인 要素가 된다. 大學의 起源인 中世大學에서는 Pepo와 Irenerius와 같은 大碩學이 있었고 그들에게 學生이 모여들었음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大學에 있어서 敎授要員의 確保는 대학을 성립시키는 첫째 要件임을 알 수 있다.

더우기 現代大學은 multiversity라고 불리우리 만큼 대학의 機能이 複合化되어졌다. 學問硏究者로서의 敎授와 授業을 담당하는 役割者로서의 敎授를 넘어서, 學生指導와 大學行政 참여, 그리고 國家社會에 대한 奉仕 등에 이르기까지 敎授의 役割은 다양하다. 이렇게 볼 때 敎授는 大學 構成要素의 核心이며 大學機能의 全領域을 떠받치고 있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韓國의 大學이 확보하고 있는 敎授數는 학생수에 비해 太不足이다. 敎授 대 學生 비가 1 : 38(1983년 統計)이다. 이는 敎授의 學生負擔이 世界에서도 類例 없이 過重한 실정으로, 大學敎育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先進國家의 有數한 大學의 경우 敎授對 學生比가 1 : 11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敎授機能의 效率性을 기하기 위한 適正線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韓國의 大學은 卒業定員制의 도입과 大學生人口의 激增으로 말미암아 지난 3년간의 學生增加率은 70%인데 비하여 敎授의 增加率은 불과 27% 안팎이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學生 增加에 따른 敎授充員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을 잘 立證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결과적으로, 韓國의 大學은 지난 10年前의 敎授對 學生比가 1 : 25였던 것에 비추어 退步現象을 招來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敎授不在의 실정에서는 大學理念 具顯 및 大學의 資質提高란 한낱 허울 좋은 美辭에 불과하다. 특히 私立大學의 敎授確保現況은 1 : 41로, 國立大學의 1 : 31에 비하여 敎授充員이 더욱 低調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私學財團의 貧弱 내지 學生登錄金에만 의존하는 私學運營 實態의 한 면을 窺知할 수 있는 것으로 韓國의 私立大學이 안고 있는 큰 問題라 아니 할 수 없다.

大學敎育의 質的 提高를 가늠하는 한 方途는 學生 登錄金에 대한 敎育費 還收率로 測定될 수 있다. 敎育을 위하여 納入되는 登錄金은 學生의 敎育을 위하여 다시 학생에게 全額 還收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大學의 質的 提高는 어려운 問題다. 뿐만 아니라 眞正한 大學의 質的 提高를 위해서는 財團에서 많은 規模의 財政을 大學을 위하여 投資하여야 財團存立의 名分이 서는 것이다. 과연 韓國의 私學에 이와 같은 私學財團이 몇이나 되는지 심히 疑問이 아닐 수 없다.

敎育費 還收率 가운데 가장 核心的인 것은 敎授要員의 確保를 위한 投資還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韓國 大學의 극히 低調한 逆比 현상의 敎授充員은 敎育費 還收率의 측면에서 問題點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우기 卒業定員制로 인하여 學生이 約 30% 增員한 만큼에 相當한 納入金에 比例한 敎育投資를 하고 있는 大學이 몇이나 될 것인가?

最多 265명까지 편성된 過密 講義室과 專任敎授 1人當 231명(1983년의 全國 平均)의 學生이 受講하고 있는 敎授의 過重한 學生負擔은 大學의 質을 低下시키는 가장 큰 原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與件에서 大學敎育의 質的 改善과 원활한 學生指導란 期待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逆比例的인 敎授充員狀況은 대학을 마치 收支均衡의 企業經營의 眼目에서 理念 없이 運營하고 있는 所致로, 빠른 時日內에 人間育成의 大學運營體制로 轉換되어 敎授對 學生比가 1:20의 適正線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敎授陣의 資質 向上을 위한 現職敎育(in-service education)도 問題라 아니 할 수 없다. 16,879명의 敎授 가운데 專任講師와 助敎授의 下位職 敎授가 52%를 차지하고 있고(1983년 통계), 學位別로 보면 碩士 이하의 敎授가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新設大學이나 2年制 大學에서 4年制 大學으로 昇格된 대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 體質을 벗어나지 못한 탓으로 下位職 敎授 및 非學位 소지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實情에 대하여 大學當局은 坐視하고만 있을 것인가? 敎授 각자에 대한 責任으로만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참다운 大學의 資質提高를 원한다면 대학은 보다 積極的인 位置에서 敎授陣의 資質向上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現職敎授들의 資質 向上을 위한 可能한 대책은 多角的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 自體에서의 校內研究費의 造成과 擴充을 통하여 敎授들의 研究意欲을 고취시켜 校內에서의 研究活動을 促進시킴으로써 敎授들의 資質向上을 꾀하는 方法 외에, 보다 積極的인 次元에서는 學位取得의 勸奬과 이에 대한 物心兩面의 支援策이 있으며, 보다 遠大한 方案으로서는 長·短期計劃에 따른 國外 派遣에 의한 敎授들의 資質育成도 可能한 方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現在 이와 같은 方案을 積極的인 次元에서 講究하고 있는 大學이 몇 개교나 되는지 自體評價(self evaluation)를 해 볼 必要가 절실하다 하겠다.

설령 위와 같은 方案이 충족된다 치더라도 敎授의 資質向上은 外形으로 드러나듯 向上되기는 어려운 것이거늘, 雪上加霜으로 敎授의 資質向上을 沮害하는 要因이 制度的으로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敎授 再任用制度의 誤用이다. 이 制度의 誤用으로 인하여 經營主의 '便宜主義'를 도와 주는 구실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짧은 任用契約, 잦은 敎授들의 離職과 他校轉職 등을 招來하게 될 때 大學의 보다 安定된 研究雰圍氣나 敎職의 安定性을 沮害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위와 같은 敎授職의 不安定現象은 敎授의 研究, 敎授(instruction), 學生指導 등에 이르기까지 決定的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敎授의 士氣에도 큰 問題라 아니 할 수 없다. 각 職級마다 지속되는 우리나라 再任用制度는 改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美國 大學社會에서 善用되고 있는 tenure system을 그대로 適用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다.

4. 學生指導

學生指導는 大學의 第四 理念이라 하리 만큼 浮刻되고 있다. 특히 근자에 이르러 世界的인 學生運動의 勃發과 이데올로기의 葛藤, 大學敎育의 大衆化, 進路指導의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傳統的으로 志向하여 온 研究·敎育·社會奉仕의 三大理念에 이어 第四의 理念으로 指稱

하리 만큼 學生指導의 問題는 심각하게 되었다.

사실상 學生指導의 敎育的인 意義는 자못 重要하다 아니 할 수 없다. 視角을 Guidance와 Counseling의 立場에서 보면 大學의 三大理念을 統合하는 이념이라 볼 수 있다. 敎授 대 學生의 만남의 廣場이다. 面 대 面(face to face)의 個別的 學生指導는 相對的인 두 人格體의 交互作用으로 生産的인 個別敎育을 위한 還流評價(feed back)의 過程이라 할 수 있다. 人間形成의 內面化와 價値化는 이 學生指導의 理念을 具顯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昨今의 大學街에서 學生指導라 하면 마치 問題學生이나 대모관련 學生들을 處罰하는 일로만 誤認되고 있다. 사실상 각 大學에 設置된 學生指導硏究所의 性格이나 그 機能 또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示唆한 바와 같이 學生指導는 大學의 三大理念을 統合하여 人格 대 人格의 만남에서 講義 외에 학생들의 學業指導, 生涯敎育, 心理相談, 就業指導, 個人問題 解決 등에 이르기까지 深層心理를 露呈시킬 수 있는 人格交涉의 道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學生指導의 理念은 土着化되어 뿌리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學生指導의 여러 측면 가운데 學業指導는 가장 核心되는 측면으로 學生의 立場에서 본 學問硏究理念의 具顯이다. 지금의 問題學生 중심의 學生指導를 넘어서 學業成績과 適性 등을 중심한 個人差의 特性에 따라 學習能力의 極大化를 꾀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學生指導硏究所'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Computer Based Education 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施設投資가 뒷받침되어야 할 커다란 先決問題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늘의 韓國 大學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5. 地域社會奉仕

韓國 大學에 있어서 地域을 위한 社會奉仕 理念은 가장 커다란 脆弱點이기도 하다. 大學이 本質的으로 追究해 온 不朽의 三大理念 가운데 眞理探究의 所産인 知識을 適用(application of knowledge)하여 社會에 擴散 貢獻하는 社會奉仕 理念은 그 方向마저 設定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실정은 결국 敎育法 第108條의 大學敎育의 目的에 있어서 社會奉仕에 대한 理念이 不透明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한 수도 있겠으나, 大學人들의 大學觀의 貧困에서도 緣由되는 問題이기도 하다.

大學이 社會와 遊離된 상태에서는 大學 存立의 意義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大學 自體는 沈滯되고 만다. 한때 中世大學이 象牙塔을 象徵하며 俗世를 떠난 學問硏究 그 自體 理念만을 固執하다가 결국 老衰하고 말았던 것이다. 社會奉仕 理念은 사회적 適應(adaptation)을 통한 生命力있는 산 理念(vital idea)의 具顯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大學은 社會的인 支持를 받아 더욱 활발히 發展할 수 있다. 대학에서 探究된 眞理는 社會福祉 增進에 적극적으로 貢獻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大學과 社會는 相互作用에 의하여 共生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大學의 特色과 長點을 찾게 되고 特性 있는 대학으로 發展할 수 있다. 要言하면 韓國의 大學이 대학의 特性을 찾기 힘들고 單一模型에 의한 量的 成長만을 追求한다고 하는 뜻은 바로 이 社會奉仕 理念의 本質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傾向은 결과적으로 大學은 社會的인 要求에 副應할 수 있는 쓸모 있는 人材를 길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가 안고 있는 産業體나 企業體를 凌駕하지 못하여 결국 쓸모없는 失業者 發生의 孤島가 되고 만다. 社會發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學科의 設定, 地域社會 發展에 필요한 社會敎育 프로그램의 開發, 地域社會의 經濟的, 文化的 發展을 圖謀할 수 있는 校外擴張講座(extension class)를 통한 奉仕 등은 大學과 地域社會가 相互依存的인 關係에서 發展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 大學의 실정으로 보아 地域社會를 위한 奉仕理念의 구현은 大學當局의 明哲한 社會觀, 敎授들의 硏究를 통한 社會的인 要請(social needs)에 대한 分析的 硏究, 이를 위한 財政的인 收斂과 支援策 등이 制度的으로 確立되어야 함이 先決要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 大

學의 現實은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큰 課題라 아니 할 수 없다.

Ⅲ. 展望과 課題

韓國의 大學은 向後 약 10년간은 계속 增加趨勢의 경향을 그대로 계속할 것이다. 이와 같은 豫見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의 大學敎育이 繼續 强勢로 치닫고 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최근에 高等敎育에 대한 激增(access to higher education) 傾向을 살펴보면 해마다 進學率이 人口의 自然 增加率을 비롯한 기타 몇 가지 原因으로 말미암아 계속 增加一路에 있었다. 즉 1981년에는 同一 年齡層의 37.9%, 1982년에는 38.8%, 그리고 1983년에는 42.7%로 增加하였었다. 이는 先進國인 美國의 57.1%(1980년 統計)의 다음가는 序列로, 같은 文化圈인 日本의 30.2%나 英國의 20.1%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당연 世界 제2위의 속하는 敎育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韓國 國民의 意識構造는 歷史的으로 볼 때 과거 오랫동안 儒敎文化의 傳統과 日帝의 韓國併呑에 억눌렸던 敎育熱이 爆發한 까닭에 오늘의 韓國 大學敎育의 現象을 자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原因은 民主主義의 哲學이 志向하는 身分의 平等主義(egalitarianism) 思想 등이 敎育의 機會均等의 문호를 開放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게 되었던 것이다. 韓國 國民의 이 같은 敎育熱意는 커다란 國力의 原初的인 資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大學敎育에 대한 敎育熱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疑問視하지 않을 수 없다. 앞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問題를 안고 있는 韓國의 大學相으로서는 도저히 이 엄청난 國民의 敎育熱意를 受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觀點에 따라 解釋과 展望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오늘날과 같은 韓國의 大學을 發展시키고 維持·經營할 수 있었던 功德은 學父母들의 敎育熱意에 歸結될 수 있는 것으로 그 勞苦는 모두 學父母와 大學生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 疑問을 提起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敎育熱意에 대한 趨勢가 언제까지 持續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肯定的으로만 展望할 수 없다. 韓國의 高等敎育의 '樂園時代'는 이미 頂點을 넘어섰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2000年代를 바라볼 때 大學을 個人의 立身揚名과 社會經濟的 上昇의 手段으로 삼았던 旣成世代는 이미 사라지고 '韓國的 大學敎育'을 받은 새로운 世代가 主人이 되고 學父兄이 된다. 과연 이네들이 보는 韓國의 大學相이 과거 日帝治下에서 敎育에 굶주렸던 旣成世代와 같을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갖는 大學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커다란 變數가 될 것이다. 筆者는 이에 대해서도 悲觀的으로 생각한다. 鮭魚는 자기가 출생하고 자랐던 옛 강에 다시 돌아와 자기의 種族을 繁殖시키고 生을 마친다고 하는데 우리의 다음 世代들이 과연 연어와 같이 無條件反射로 動物들만이 갖는 特有本能을 되풀이할 것인가? 사람은 理性的인 動物이라 함은 일찌기 알려진 眞理이다. 결코 人間은 연어와 같을 수 없다. 이 點이 2000年代의 韓國의 高等敎育像을 左右하는 커다란 變數로 보인다.

또 다른 變數는 지금과 같은 科學文明의 發達趨勢로 미루어 보면 2000年代에 가서는 産業社會가 完了되고 情報化社會로 進入되어 제2의 産業革命이 올 것이라는 것이 專門家들의 共通의견이다. 이렇게 될 때 大學敎育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高等敎育政策에 있어서 人力需給計劃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絕對的인 基準이 되는 것처럼 政策樹立家들이 敎條主義처럼 섬겨 왔었다. 情報化社會로들어가면 이와 같은 政策樹立觀은 한낱 쓰레기 같은 存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많은 人力이 動員되지 않아도 지금의 數十培의 能率을 올릴 수 있는 社會가 될것이다. 이와 같은 2000年代를 照準하여 現大學敎育體制를 觀照할 때 이는 한낱 人的 資源과 物的 資源의 浪費로 沒落하고 말 것이다. J. Dewey가 말했던 眞理의 變化觀과 相對性의 哲學을 더욱 切感하는 社會로 變貌될 지 모른다. 이에 대하여 大學은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이며, 그 處方은 무엇인가가 큰 課題로 登場하게 될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視點에서 2000年代의 高等敎育을 觀望할 때 지극히 悲觀的으로 보인다. 더우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하 韓國 高等敎育이 안고 있는 問題點이 複合하여 더욱 더 悲觀的인 大學相으로 失墜될 것이 豫見된다. 지금 이웃 나라인 日本의 大學相을 보면, 한동안 그렇게도 高潮되었던 高等敎育에 대한 激增이 우리 韓國보다 앞서 陣痛을 겪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한풀 꺾인 印象이다. 한동안 日本의 大學은 '驛逓大學'이라 불리우리 만큼 4年制 大學을 비롯하여 2年制 短大(初級大學)가 자그마한 農村都市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膨脹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私立大學의 設立은 마치 韓國의 敎會가 設立되듯 亂立하여 私立大學의 比가 世界 제1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韓國의 경우 國·私大의 比가 약 3:7로 본다면 日本은 이보다 더욱 높은 比率로 群小私立大學이 滿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의 어떤 學者는 "私立大學의 虛像과 實像"이란 論題로 日本의 私立大學을 酷評하기도 하였다. 이는 말할 나위 없이 私立大學 가운데는 大學답지 않은 不實大學이 많았기 때문이다. 日本은 이와 같은 大學相에 厭症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顧客(client)인 學生이나 學父兄이 大學을 '敬遠'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動向인 것 같다. 特性 없는 不實大學을 나와 봤자 就職도 안 될 뿐 아니라, 막대한 敎育費 浪費에 불과하다는 것을 顧客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韓國의 大學은 이와 같은 日本의 大學相을 彼岸의 불 보듯 보고만 있을 것인가? 단적인 예로서 일부 專門大學들은 대체로 失業者 내지 高等遊民만 生産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問題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特性 없는 大學으로 그저 時流에 맡겨 浮動하는 대학으로 떠돌고만 있다가 單一模型의 4年制 大學으로 昇格하는 것을 至上의 目標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확고부동한 大學理念과 大學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韓國의 大學들이 대학의 價値化(valuation)를 위한 努力을 얼마나 傾注하고 있는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特色 없이 흉내내는 大學은 不遠 淘汰되고 말 것이라고 先覺하는 大學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증이 가시기 어렵다. 日本에서는 그와 같은 大學相이 서서히 脫高等敎育 段階로 접어들고 있는 徵候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의 大學을 찾던 顧客들은 근래에 와서는 차라리 투철한 1人1技 중심의 職業訓練院을 찾고 있는 傾向이 짙어지고 있다고 한다. 高學歷社會를 모토로 삼던 大學의 '樂園時代'는 이미 기울어졌고, 脫高等敎育時代를 豫告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大學들은 대학 나름대로의 '보금자리'의 鄕愁에 젖어만 있을 것인가? 大學街에 葬送曲이 울려 퍼져 나올 그 날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참으로 큰 課題라 아니 할 수 없다.

韓國의 大學人들은 衆知를 모아 이 거세게 닥쳐 올 波濤를 헤쳐 나갈 'Humboldt의 哲學'을 자아 낼 召命意識을 切感하여야 한다. 이럼으로써 韓國 大學은 失樂園(Paradise Lost)의 시궁창에서 復樂園(Paradise Regained)의 에덴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金成植, 「大學史」, 서울 ; 金龍圖書株式會社, 1947.
金玉煥, 「大學論」, 서울 ; 文音社, 1983.
金鍾喆, 「韓國高等敎育硏究」, 서울 ; 培英社, 1979.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文敎部.
李敎熙·金吉福, 「大學의 傳統과 現實」,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韓基彦, 「大學의 理念」, 서울 ; 世光公社, 1979.
中村忠一, 「私立大學の虛像と實像」, 東京 ; 東洋經濟新聞社, 1980.
Ashby, Eric, *Technology and the Academics*, New york: Macmillan Co., 1963.
Brubacher, J.S, *On the Philosophy of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y-Bass, 1978.
Jaspers, Karl., *The Idea of University*, trans. Reiche and Vanderschmit, Boston: Beacon Press, 1959.
Kerr, Clark, *The Uses of the Universitie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3.
Ortega Y Gasset, J., *Mission of the Universit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44.